

대주보

연중 제28주일
2020. 10. 11. (가해) 제2236호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 오너라.” (마태 22,9)



『혼인잔치의 비유』, 안드레이 미로노프, 2014, © CCASA4.0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산내본당 주임 | 손종현 요한 신부

평안하십니까?

제가 어느 작은 본당에 살 때, 한 교우 어르신이 손자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서 잔치를 벌인다고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본당 신부로서 저 역시 신이 났습니다. 잔칫집에 가보니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고, 동네 사람들은 마당 한가득 모여서 흥에 겨워 맛있는 음식과 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에는 흥에 겨워 춤까지 추며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누군가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잔치는 정말 즐겁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목정 성지의 이양등 베드로, 김종륜 루카, 허인백 야고보 복자님을 생각해 봅니다. 진목정 범굴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시다가 체포되는 순간 허인백 야고보 복자님은 “마쳤구나, 세상일은 오늘에야 마쳤구나.”하고 성호경을 외우며 포승을 즐거이 받은 후 아들, 딸에게 ‘천주를 잘 받들어 섬기다가 이 세상 떠난 후 천당에서 만나자.’라고 유언하시며 당당하게 군문효수를 받으러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숨어 사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맞는 예복을 준비하시기 위해 사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필요한 예복은 하느님께로 향한 믿음과 봉헌의 삶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믿음과 봉헌의 예복을 입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선택은 예복을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이사 25,9-10) **필문**

그냥 그런 내가 거기에 있었다

- '나'로부터 시작하는 치유 : 자기 발견

교구 소람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초등학교 4학년 때 놀랍고 새로운 음식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TV에서 광고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였습니다. 비주얼이라고 하지요~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에 너무나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반 여학생 한 명이 점심 도시락 반찬으로 바로 그 줄줄이 비엔나를 싸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반장이었던 저는 너무 먹고 싶긴 한데 하나 달라고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만두자니 먹어보고 싶고, '하나만 달라 할까?' 하는 욕망과 사회적 신분과 체통의 갈등 속에서 결국 달라는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새침테기 그 친구는 싫다면서 반찬 뚜껑을 살짝 열고 하나씩 먹으며 약을 살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욕구도 좌절되고 화도 나고... 충돌하는 감정은 과격한 행동을 낳았습니다. 뚜껑을 여는 그 순간,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매와 같이 번개처럼 손을 집어넣어 그것을 잡아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줄줄이 비엔나입니다. 줄줄 팔려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네 개나! 그랬더니 친구는 화가 나서 포크로 제 손등을 내리찍고 말았습니다. 손등에서 피는 나고 아프고, 손에 들린 줄줄이 비엔나는 너무 맛있고... 아픈데 맛있는, 부끄러운데 만족스러운 그 충족감! 아~ 물론 결론은 선생님께 혼나고, 부모님께 혼나고 그랬지요. 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먹었으니까요!

오픈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기 탐색을 하고 발견한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보는 하나의 과정을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반추해보면 당시 저는 내적 갈등 속에서 나름대로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였습니다. 포크는 예상 밖의

상황이지만 '먹고 싶다'와 '부끄럽다'는 갈등, 충돌하는 방종과 도덕, 이성과 감성, 감정과 감정의 모순을 경험했습니다. 도시락 반찬은 이런 것이라는 기존의 제 세계관을 깨뜨린 음식문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고 싶다고 말하지 말아야 부모님 속을 상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니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하지 말자니 너무나 하고 싶고...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 그냥 그런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맞다, 틀렸다! 착한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잘했다, 못했다! 그런 평가 이전에 그냥 줄줄이 비엔나가 너무 먹고 싶었고 그로 인해 손이 아팠던,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래서 우두커니 서 있는 11살의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상담소를 오시는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 자신을 알고 싶어요. 자존감이 낮아요. 나를 사랑하고 싶어요.'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잘 알면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고, 나의 나쁜 점 - 안 좋은 점 - 단점을 알면 극복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존감이 높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신념입니다. 물론 상담 안에서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누며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나 남들도 세상도 모두가 나를 평가하고 있는데, 나 자신도 나를 편협한 척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존감, 자기에, 자신감, 자기 효능감, 자기 안녕감...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찾으려고 너무 많이 애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꽃**

미사 때 바치는 예물 봉헌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물 봉헌은 성찬 전례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될 예물을 제대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는 빵과 포도주와 물, 곧 그리스도께서 당신 손에 드셨던 똑같은 재료들을 제대에 가져가는 것입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72항 참조〕

신자들이 전례용 빵과 포도주를 옛날처럼 자기 집에서 가져오지 않더라도 예물 봉헌이 지닌 가치와 영적인 뜻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열두 제자와 함께 빵과 포도주를 드시며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미사는 그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 성찬 전례를 시작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자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여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 이사야를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려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몸과 피가 될 예물 봉헌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물을 봉헌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당신의 희생 제사 안에서 완전하게 하십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50항〕

우리는 성찬을 위한 예물 봉헌 때 빵과 포도주뿐 아니라 예물(헌금)을 바침으로써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됩니다. 신자들의 봉헌물(헌금)은 주님의 식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님의 희생 제사에 함께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예물로 바치는 봉헌금은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고, 교회를 유지하며 가난한 형제들을 돕고 사제가 생활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므로 예물 봉헌(헌금)은 그리스도의 사랑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미사 전례』



조용삼 베드로 (?~1801년)

경기도 양근에서 태어난 조용삼 베드로는 일찍 모친을 여의고 부친 슬하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집이 가난한데다가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하였고, 외모 또한 보잘 것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비웃기만 하였다. 그는 서른 살이 되도록 혼인할 여성을 구할 수조차 없었다. 그 후 베드로는 부친과 함께 여주에 사는 임희영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때서야 처음으로 천주교 교리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정약중 아우구스티노를 스승으로 받들고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의 스승 정약중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조롱하였음에도 그의 열심을 칭찬해 주면서 차츰 신앙의 길로 인도해 나갔다.

베드로가 아직 예비 신자였을 때인 1800년 4월 15일, 부친과 함께 여주 정중호의 집에서 부활 대축일을 지내다가 그곳에서 이중배 마르티노, 원경도 요한 등과 함께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비록 예비 신자에 불과했을지라도 조용삼 베드로의 용기는 체포되는 즉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혹독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자, 박해자들은 화가 나서 더욱 세게 매질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박해자들은 그의 부친을 끌어내다가 ‘네가 배교하지 않는다면 부친을 당장에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혹독한 매질을 하였다. 베드로는 마침내 굴복하여 석방되고 말았다. 그러나 관청에서 나오다가 이중배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권면하는 말을 듣고는 즉시 마음을 돌이켜 다시 관청으로 들어가 신앙을 고백하였다.

이후 베드로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박해자들은 전처럼 그의 마음을 꺾을 수 있으리라 믿고는 더욱 혹독한 형벌을 가하였지만, 그의 신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는 경기도 감영으로 끌려가 다시 여러 차례 문초를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던 중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나 곳곳에서 신자들이 체포되었다. 바로 그 무렵 조용삼 베드로는 옥중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하였으며, 이후로는 착한 행동과 아름다운 말로 여러 신자들을 감동시켰다.

베드로는 1801년 2월에 다시 감사 앞으로 끌려 나가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큰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약해진 그의 몸은 더 이상의 형벌을 받아낼 수 없었고, 결국에는 다시 옥에 갇힌 지 며칠 만인 3월 27일(음력 2월 14일)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마지막 형벌 때에 그는 박해자들을 향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였다.

“하늘에는 두 명의 주인이 없고, 사람에게에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천주를 위한 번 죽는 것뿐이며,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이사 25,6-10ㄱ	제 2 독 서	필리 4,12-14.19-20	복 음	마태 22,1-14.
화 답 송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1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 **목 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 **부 문**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 **신청기간** 2020년 10월 14일 ~ 12월 14일 • **접수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cai@cbck.kr)
- **문 의**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산골(散骨)에 관한 질의응답 ②

화장을 하고 남은 유골을 뿌리거나 집에 보관할 수 있습니까?

가톨릭교회는 유골을 허공이나 땅이나 바다 등의 장소에 뿌리거나 집에 보관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6항 참조) 교회는 “합법적 이유로 시신의 화장을 선택한 경우, 세상을 떠난 신자의 유골은 거룩한 장소, 곧 묘지, 또는 어떤 경우에 교회나 이를 목적으로 마련되어 교회의 관할 권위가 지정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한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5항)고 하면서, 화장한 뒤에 남은 유골을 뿌리거나 집에 보관하는 일은 그리스도 교리에 반대되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가 생전에 교회의 뜻에 반해 유해를 '산골(散骨)하도록 유언을 했다면, 교회법에 따라 장례미사가 거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8항 참조) 세상을 떠난 이들의 유골을 거룩한 장소에 보존하는 일은 그들의 유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추모, 그리고 유골에 대한 존중과 부적 절하거나 미신적인 관습의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5항 참조)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떠난 신자를 화장한 뒤 유골을 뿌리거나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하는 행위, 유가족들이 유골을 나누어 가지는 행위(行爲)를 금지(禁止)합니다.



미사 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2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12일(월) 11:00 죽도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2일(월) 11:00 계산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13일(화) 11:30 계산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12일(월) 11:00 용강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14일(수) 10:00 평화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2일(월) 11:00 신평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0월 17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10.17(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산내 치유 피정(정원 10명)

일시: 10.20(화) 14:00~21(수) 18:00
장소: 효령하늘집
피정비: 4만원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바오로딸 온라인 7일 피정(1단계)

일시: 10.25(일)~31(토)
목적: 일상 속 하느님과과의 만남
대상: 청년·일반 30명 / 비용: 1만 5천원
방법: 네이버 밴드
신청: 이크레센시아 수녀, (010)2047-1610

행사 | 모임

10월 예비신학생 모임(중1~고2)

일시: 10.18(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김종숙 요안나 도예 성물전 (볼리비아 도시락 후원 기금마련)

일시: 10.12(월)~24(토)
장소: 남대영기념관 빠리니홀
문의: 629-1117

교육 | 모집 | 기타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모집

접수: 10.26(월)~11.20(금)
설명회: 10.24(토) 14:00, 시청각실
상호문화캠프: 11.7(토)
주최: 사랑의씨튼수녀회 운영 학교법인
문의: (061)432-9241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10.19~21 / 10.30~11.1 / 11.13~15
장소: 제주성지 7곳(신부님 성지해설)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회
문의: (064)805-9890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심리상담
방법: 전화 및 사이버,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청도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오픈

대상: 자연 속에서 휴양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5225-4538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사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초혼, 재혼)

가나혼인잔치

25년 전통의 가톨릭전문결혼정보회사

전국대표전화 : 1566-6205
대구 : 070-4790-3888
서울 : 02-3141-3888
부산 : 051-817-3887

기백한의원

허리, 어깨, 손발저림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장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찬현(야고보) 신부
2019년 10월 12일
- 이창호(안드레아) 신부
2008년 10월 17일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신입생 모집

접수: 11.2(월)~13(금) / 월, 목 야간 강의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학생 전원 50% 장학금
문의: 660-5252~4 / (010)6563-0409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접수: 11.2(월)~13(금) 17:00
전형: 11.30(월) 14:00(석사과정)
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
문화학 / 문의: (02)2258-7076, 7107

2021학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 설명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그룹으로 진행하니
입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어린이집으
로 문의 후 일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10.12(월)~23(금) 10:30~11:30
14:00~15:00 / 문의: 256-6862

2021학년도 평리유치원 입학 설명회

일시: 10.23(금) 10:30(1차), 14:00(2차)

대상: 2015.1.1~2017.12.31 출생유아
모집: 11.2(월) 부터 온라인_처음학교로
방문신청_유치원
문의: 555-2021

2021학년도 대건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일시: 10.24(토) 14:00
장소: 대건고등학교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기회균등전형(국민기초, 차상위 등)입학 시
전원 장학금 지급,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ME 주말

381차: 10.23(금)~25(일)
382차: 11.27(금)~29(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꽃차, 색소폰,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오카리나, 서양화, 사범자격과정꽃꽂이,
발성법, 가곡성가, 섬유공예, 우쿨렐레,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35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2021.1.2~30(4주, 6주, 8주)
설명회: 10.24(토) 14:00
대상: 초등 3학년~중등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650-3529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채용 | 안내

학교법인선목학원 교원 채용

(1차 시험 교육청 위탁)

접수: 10.19(월)~23(금)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등은
선목학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dgsunmok.or.kr>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원 채용

인원: 1명(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상세: 교구 홈페이지 참조
문의: 710-1391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서영(시문)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혈당계·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주사기·보호대·뜸·부항기
주열가·체온계·육창매트·환자용품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기·찜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소화기·내시경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단입지역 7번출구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손금바
(목주반지·김사선물·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진 우(마리아)
♥ 롯데백화점 대구역점 맞은편 인종방향 ♥
공명·진동·주사청 무료 | 영업시간 11:00~19:00
☎053)428-7989 | 010-4439-9991
♥ 예쁜 선물 증정 ♥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밤·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충북방향 20m)

in Sang Dox Neurology Clinic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전증 학회장
대구 경북지배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가람소방방재(주)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
◆종합정밀점검 ◆소방관련기술교육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노비르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페파노)

건강검진은
진인 병원
위·대장 내시경
5대암검진
연말검진
| 대표전화 | 1688-7667